

# 탈분화의 공간적 반영

- 제주관광을 사례로 -

오 정 준\*

## Issues on Spatial Reflection of De-differentiation in Jeju Island

Jeong-Joon Oh\*

**요약** : 자기정당화를 통한 사회 각 부분의 분화가 현대성의 특징이었다면, 탈현대성 혹은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사회 각 부분의 경계가 소멸되는 탈분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탈분화는 작금의 관광현상을 통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의 각 부분과 관광과의 경계가 소멸됨으로써 관광은 단순히 '보는 행위' 행위에서 벗어나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교육적 활동들을 수반하게 되고, 즐거움의 추구보다는 교육적이고 자기 계발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관광에서의 이러한 탈분화는 다시 공간적으로 반영됨으로써 지역주민의 일상공간과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공간과의 중첩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를 연구지역으로 하여 관광과 사회 각 부분과의 탈분화를 통해 나타나는 탈현대적 관광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것이 공간적으로 반영되는 양상을 기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지역의 경우 현대적 관광의 시기에서는 자연관광자원 위주의 색다른 장소를 중심으로 관광객이 형성됨으로써 해안지역에 관광지가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탈현대적 관광의 시기에서는 관광객들의 특정한 기호를 중심으로 관광지가 형성됨으로써 제주도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장소가 관광지로 형성되고 있다. 그 결과 기존의 해안중심에서 중산간 지역으로의 수직적 확산과 서부 및 동부중산간 지역으로의 수평적 확산이 나타나고 있다.

**주요어** : 탈분화, 분화, 경계의 소멸, 탈현대적 관광, 관광공간의 확산

**Abstract** : Modernism is understood as a process of differentiation. Postmodernism or postmodernity, by contrast, involves de-differentiation. There is a breakdown in the distinctiveness of each of spheres of social activities. It is important to explain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de-differentiation and a wide variety of contemporary tourism, especially postmodern tourism. Also, de-differentiation between the tourism and the social spheres lead to the spatial reflection.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rocesses of de-differentiation between the tourism and the social spheres, which comes out spatially in Jeju island. Especially, location of destinations is concentrated on the coastline in the period of modern tourism. On the contrary, the postmodern tourism shows that the location of destinations are wide spread diffusion its vertically and horizontally. It means that there are to appear a breakdown of distinctiveness between the conventional tourism destinations and the regional person's space.

**Key Words** : de-differentiation, differentiation, breakdown of distinctiveness, postmodern tourism, spatial diffusion of destination

### 1. 서론

모든 사회이론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대상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세계이다. 이는 시간과 공

간 그리고 행위와 구조가 얽혀있는 망(網)으로서, 모든 사회현상들은 이러한 네 요소의 상호교차 속에 이루어진 실천의 산물이다(김왕배, 2000). 그러나 공간에 대한 중요성은 사회이론의 영역에서 상

\*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객원연구원(Researcher, 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ohjj777@hotmail.com.

대적으로 간과되어왔고(Urry, 1989), 단지 선형적이고 절대적인 조건으로만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사회의 물적 토대가 변화함에 따라 이는 상대적이고 상호 유기적인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했고(김왕배, 2000), 더 나아가 사회현상에 지대한 영향력을 제공하는 요소로 부각되었다(박형준·권기돈 역, 1998).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최근 사회과학계에서는 공간에 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또 다른 영역이 사회과학계에서 존재한다. 그것은 여가 및 관광에 관한 것이다. 관광은 일상으로부터의 탈출과 즐거움을 가지려는 수단으로 이해되었고, 생활세계를 설명하려는 사회이론에서 오랫동안 배제되어왔다. 이는 관광이라는 학문자체의 성격과 사회과학계의 편견에 기인한다. 관광을 하나의 산업이나 사업으로만 규정짓는, 다시 말해 응용 지향적인 실천성을 강조한 과거 관광관련학계의 입장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동보다는 구조를,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을, 그리고 여가 및 관광보다는 노동을 중시하는 사회과학계의 편견에도 문제가 있다(박형준·권기돈 역, 1998).

그러나 작금의 관광현상은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사회현상중의 하나로 부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를 움직이는 커다란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70억 세계인구의 15%가 세계화의 전도사를 자처하는 국제관광객이고(WTO, 2004), 국내 총인구의 96%가 연간 6.02회의 관광경험을 나타내고 있다(한국관광공사, 2002). 비단 인구의 절대적 이동뿐만 아니라 그에 파생되는 상대적 영향은 관광을 단순한 이동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관광을 일상으로의 탈출과 즐거움을 가지려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과오라고 볼 수 있다. 관광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여가의 의미를 넘어 사회이론과 국제적인 관계에 의존해야 하며, 관광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위해선 사회이론과 개념을 사용해야만 한다(Mowforth and Munt, 1998).

이에 본 고에서는 사회현상과 공간과의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론으로서의 사회이론과 사회철학들이 국내의 사회지리분야에서 활발하게 소개되고 있듯이(최병두, 2002), 탈현대성, 혹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사회이론과 그것의 대표적 특

징중의 하나인 탈분화 개념을 통해 작금의 관광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탈분화가 공간적으로 반영되는 양상을 대한민국 제1의 관광목적지인 제주도를 사례로 기술하고자 한다. 앞선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문헌조사 및 제주도 관광에 관한 기초 통계를 활용하였다. 또한 대규모 관광회사의 패키지 투어에 참여함으로써 현대적 관광의 양상과 관광코스를 분석하였고, 제주문화관광개발원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탈현대적 관광의 양상과 관광코스를 조사하였다<sup>1)</sup>.

## 2. 탈분화와 관광

### 1) 분화와 탈분화

탈분화(de-differentiation)를 고려하기 앞서 분화(differentiation)에 대한 설명이 선행되는 것과, 각각이 포스트모더니즘 및 모더니즘에서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도출하는 것은 탈분화와 관광과의 관계를 고찰하는데 분석틀이 될 수 있다. 분화에 관한 개념적 토대를 제공한 학자는 Weber라고 할 수 있다(김재필 역, 1993). 그는 자기결정(Eigengesetzlichkeit)이라는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의 각 부문이 자기정당화(self-legislating)의 과정을 경험한다고 보았는데(Urry, 2002), 이는 다시 말해 각 부문이 스스로의 관습과 가치 평가의 양식을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분화는 문화와 사회, 혹은 기타의 사회 각 부문이 미분화되어있던 원시사회로부터 자연, 신(神), 혹은 실재하는 것을 통해 입법화되는 기초론(foundationalism)에 이르기까지 전현대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행하여졌던 기준 및 사고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며, 동시에 타율적 입법으로의 해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김재필 역, 1993).

이를 통해 경제, 가족, 국가, 과학, 도덕, 노동, 여가, 그리고 관광 등과 같은 다수의 제도적이고 규범적 부문의 구별된 발전인 '구조적 분화'가 나타나게 되었고, 각각의 부문은 고유한 평가관례와 평가양식을 통해 타부문과의 구별을 조장하게 된다. 이렇게 각각의 영역을 구축하는 사회의 각 부문들은 다시 내부적인 분화를 통해 이차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것이 수직적(vertical) 분화이고, 앞서 언

급한 사회 각 부문의 구조적 분화는 수평적(horizontal) 분화라고 볼 수 있다(Urry, 2002). 후자가 생산과 소비, 문화와 경제, 그리고 노동과 여가와의 구분을 명확히 했다면, 전자는 각 부문내에서의 다수의 구별을 재구성한다. 문화부문의 예를 들자면 고급과 저급(대중) 문화간에, 영기 어린(auratic) 예술과 대중적인 오락간의, 소비의 대중적인 형태와 엘리트적인 것간에 또 다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박형준·권기돈 역, 1998).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혹은 탈현대성(postmodernity)은 탈분화를 수반한다. 탈분화에 관한 이론가는 Baudrillard와 Lash가 대표적이다. Lash가 포스트모더니즘에 한정하여 탈분화를 설명한 반면에, Baudrillard는 범위의 폭을 탈현대성으로 확대하였다. 그는 내파(implosion)가 탈현대성의 대표적 특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발전한 이원적 대립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역설하였다(전경갑, 1998). 다시 말해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진리와 허위, 실제와 모사간의 경계가 내파를 통해 소멸되고있고, 이를 통해 탈분화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Lash의 경우는 문화패러다임의 네 가지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요소들 각각에서의 탈분화를 설명하였다. 먼저 생산된 문화대상유형들 사이의 심미적, 이론적, 윤리적 관계를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관계는 미적 영역이 이론적 영역과 도덕적 영역을 식민지화함으로써 각 영역간에 자율성이 상실된다는 것이다. 자율성의 상실은 더 이상의 분화가 없음을 의미하기에 궁극적으론 탈분화의 과정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김재필 역, 1993). 두 번째는 문화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문화영역은 더 이상 더 이상 영기 어린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음으로서 대중문화와 고급문화간의 경계가 소멸되고, 관객과 청중간의 경계 역시 소멸된다는 것이다. 이는 Benjamin의 논의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Benjamin, 1973; Urry, 2002에서 재인용). 세 번째는 문화와 경제의 관계로서, 문화라는 존재는 더 이상 계승 발전되는 생산양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소비의 대상으로 양립한다는 견해이다. 결국 양자간의 경계가 소멸됨으로써 탈분화가 진행된다는 것이다<sup>2)</sup>. 마지막으로 의미작용

의 체제로서 실제(reality)와 재현(representation)의 문제와 결부되는 사항이다. 모더니즘에서는 시니피앙(signifier), 시니피에(signified) 그리고 지시대상의 역할들을 분명하게 분화시키고 자율화하였다. 연장선상에서 미적 리얼리즘에서는 실제의 한 유형이 반드시 실제의 다른 유형을 표상해야만하는 재현의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고, 인식론적 리얼리즘 또한 개념이나 관념들이 현실의 모습을 더 실제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분화의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Lash, 1990). 이에 반해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의미작용의 점증하는 부분이 낱말보다는 이미지를 통해 발생하고 있기에 지시대상들이 대부분 시니피앙이며, 낱말들보다 이미지들이 지시대상을 더욱 닮았다는 점에서 탈분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작금에 소비되는 것은 기호와 표상이며(Baudrillard, 1983; Urry, 2002에서 재인용). 그 결과 가짜가 진짜를 지배함으로써 나타나는 진짜 시뮬라클럼(pure simulacrum)의 시대가 나타난다는 것이다(하태환 역, 2001). 결국 모더니즘은 재현을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포스트모더니즘은 실재를 문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김재필 역, 1993).

## 2) 관광과 탈분화

문화에서 탈분화로의 변화는 사회의 각 부문에 걸쳐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관광부문에서는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관광의 발전과정을 통해 현대성과 탈현대성이 관광현상에 반영된 양상을 고찰할 수 있다. 현대성의 핵심적 특징 중에는 사회관계의 지역적 맥락 탈피(임현진·정일준 역, 1998)와 이동을 전제로 한 운동 개념이 있다(박형준·권기돈 역, 1998).

전자는 사회관계가 지역적 연관에서 들려나와 더 큰 폭의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재조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탈피는 신뢰에 의존하는데 19세기 영국의 대표적 관광회사인 Cook & Sons은 신뢰를 통해 일반대중으로 하여금 지역적 맥락에서의 탈피를 가능하게 해주었다(박형준·권기돈 역, 1998). 이전의 여행은 교통기관의 미발전으로 인해 고통의 연속이었다<sup>3)</sup>. 많은 수의 여행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돌아오더라도 질병과 여독(旅毒)으로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Cook

& Sons의 관광상품은 안전했으며, 고통스런 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선 관광회사를 신뢰했기에 지역을 탈피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대중관광(mass tourism)의 서막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후자는 관광의 가장 큰 특징이 상이한 공간을 가로지르는 이동이고, 현대사회가 이동 혹은 여행의 본성을 현저하게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상관관계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현대사회는 고속화된 대중교통체계와 현대화된 예약시스템을 통해 이동 혹은 기존 여행의 본성을 현저하게 변화시켰고, 이를 통해 세계는 축소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현대적 생활의 가장 필수적인 행동이 바로 관광행위라는 인식의 일치가 서구사회에서 만연되었다(Shaw and Williams, 1994). 이제 현대사회에서 어딘가를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차를 소유하지 않고, 집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시되고 있기 때문이다(Feifer, 1985; Urry, 2002에서 재인용).

또한 현대성의 또 다른 특징인 표준화와 포드주의를 통해 관광과의 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 관광이 팩키지를 통한 표준화가 정착됨으로써 무질서하고 일관성이 없는 기존 여행의 현대화를 가져왔고, 이는 결국 관광상품의 보편화와 통일화를 도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관광체계를 일반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관광 운영자(operators)나 대리인(agent)에 의한 팩키지, 다시 말해 표준화는 공간적 이동이라는 관광의 대표적 특징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사람들이 지역적 맥락에서 탈피할 수 있는 신뢰를 구축해 주었다.

또한 포드주의에 근거한 생산방식을 통해 대중관광을 설명할 수 있다. 대중관광은 관광 운영자의 입장, 다시 말해 공급자의 입장에서 관광상품을 대량화 및 팩키지화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는 곧 소수의 관광상품으로 생산비용을 절감시키고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는 포드주의 생산체계를 표방하는 것으로서, 관광상품의 공급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오정준, 2003). 관광운영자는 관광객의 개인적 기호나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들을 하나의 균질한 집단으로 고려하였다(Urry, 2002). 따라서 대중관광에서의 관광객은 관광운영자가 생산하는 소수의 관광상품을 아무런 비판 없이 경험하는 하나의 소비자였기에

관광의 실질적 주체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오정준, 2003). 이러한 현대적 관광, 다시 말해 대중관광은 사회의 각 부문과 관련이 없는, 다시 말해 독립된 영역으로의 발전을 추구하였고, 관광, 혹은 더 큰 의미에서의 여가는 노동과의 이분법적 사고를 통해 설명되었다.

반면 관광분야에서 탈현대적 특징을 가장 대표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것은 대안관광(alternative tourism)이다. 물론 Poon(Poon, 1989)이 주창한 신관광(new tourism), Krippendorf(Krippendorf, 1982)가 주창한 연성관광(soft tourism), 그리고 Munt가 제기한 실재적 휴가(real holiday)<sup>4)</sup> 역시 탈현대적 관광을 대표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대중관광에 반(反)하는 관광유형으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대안관광이라고 볼 수 있다<sup>5)</sup>. 대안관광은 수요자, 다시 말하면 관광객의 기호와 취향을 다분히 고려함으로써 이전의 관광상품에 비해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그것의 첫 번째 특징은 관광상품의 다변화를 초래하는 관광상품의 유연적 공급이 있다(Munt, 1994). 기존의 관광상품은 관광객의 소비 패턴과 기호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소수의 한정된 단체관광상품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탈포드주의적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영향력이 증대됨과 동시에 공급자 역시 소비자 지향적으로 변모됨으로써 소수의 인원이 경험할 수 있도록 관광상품의 유연적 공급이 나타났다. 그 결과 관광객의 다변화된 기호를 충족시켜주는 관광상품이 개발되는 것은 물론이고, 세분화되고 주제화된 관광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박형준·권기돈 역, 1998). 한편 소비자 기호의 변동성을 통해 관광양상 또한 변화하고 있다. 관광상품 및 관광지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가 고정되지 않고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관광운영자는 새로운 관광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고 있다. 그 결과 관광상품 및 관광지는 그 수명이 예전에 비해 훨씬 단축됐으며, 민감한 유행의 변화를 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관광지는 감소하는 관광객의 유입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지역을 마케팅, 홍보, 진흥시킴과 동시에 공간을 재편성시킴으로써 지역을 재부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Munt, 1994).

그러나 탈현대적 관광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탈분화라고 볼 수 있다. 대중관광에서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지과 관광자원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관광객의 행동 역시 단순하였다. 그들이 방문하는 관광지는 3S를 충족하는 지역, 다시 말해 해변(sea)과 태양(sun)과 모래(sand)를 경험할 수 있는 해안경승지나 해수욕장에 국한되었고, 행동양식 또한 즐거움과 오락에 치중하는, 단순히 '보는 관광'만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안관광의 경우는 다양한 활동을 수반한다. 관광에 교육적, 학구적, 과학적 측면, 다시 말해 지적(知的)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으며, 모험, 트레킹(trekking), 등산, 산악자전거와 같은 다양한 활동이 수반되고 있다(Munt, 1994). 관광과 상이한 행동과의 결합은 새로운 관광유형의 탄생을 가져옴으로써 관광형태의 다변화를 수반하고 있다(Mowforth and Munt, 1998). 이러한 결과로 새롭게 탄생하거나 부각된 관광형태들이 바로 문화관광, 생태관광, 체험관광, 녹색관광 등이다.

그 결과 관광이라는 용어 앞에 그 어떤 접두사가 결합되더라도 관광의 형태가 되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Mowforth와 Munt는 이러한 현상을 '새로운 관광용어의 A에서 Z까지(an A to Z of new tourism terminology)'라고 명명하였다. 이는 곧 알파벳 A, B, C ... 중략 ... Z으로 시작되는 수

많은 접두사가 '관광' 앞에 결합됨으로써 새로운 신조어가 파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6)</sup>. 이는 결국 관광양상이 다양화 및 세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관광과 일상생활과의 경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Munt는 '모든 것이 관광이다'라고 정의하였고(Munt, 1994), Urry는 '사람들은 좋건 싫든 간에 많은 시간동안 관광객이다'라고 주장하였다(Urry, 2002).

한편 각각의 관광형태를 통해 탈분화의 양상을 고찰할 수 있다. 문화관광은 문화와 경제와의 탈분화가 진행된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예전의 문화는 하나의 생산양식이었으나, 최근에는 소비의 대상으로도 고려되고 있다. 국가 및 지역의 문화는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는 경제적 혜택을 얻고자 한다. 이에 문화는 생산의 대상임과 동시에 소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결국 생산과 소비의 탈분화, 문화와 경제의 탈분화를 통해 수반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관객과 청중간의 탈분화를 통해 최근의 관광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 과거에는 배우와 관객이 이원적 구조속에서, 서로 상반된 부문으로 분화되었다. 그러나 탈현대적 사회에서는 관객이 무대로 올라가서 참여하거나 배우가 무대 아래로 내려와 관객과 호흡함으로써 그

표 1. 최근 관광의 변화양상

| 구분     | 현대적 관광(modern tourism)                                                                                                                                             | 탈현대적 관광 (postmodern tourism)                                                                                                                                                                                                            |
|--------|--------------------------------------------------------------------------------------------------------------------------------------------------------------------|-----------------------------------------------------------------------------------------------------------------------------------------------------------------------------------------------------------------------------------------|
| 배경     | 현대성<br>산업사회                                                                                                                                                        | 탈현대성<br>후기산업사회                                                                                                                                                                                                                          |
| 관광유형   | 대중관광 / 경성관광                                                                                                                                                        | 대안관광 / 연성관광 / 신관광                                                                                                                                                                                                                       |
| 특징     | 분화<br>포드주의<br>생산자 중심 / 관광상품의 소품종 대량화<br>단체<br>패키지(packaged)<br>비실재(unreal) 관광자원의 소비<br>책임 없는(irresponsible) 행동<br>지역사회에 대한 높은 영향(high impact tourism)<br>수동적 / 위략적 | 탈분화<br>탈포드주의<br>소비자 중심 / 관광상품의 다품종 소량화<br>개인, 신중단계급(new middle class)<br>비패키지(unpackaged), 유연적(flexible)<br>실재(real), 초실재(hyperreal) 관광자원의 소비<br>책임 있는(responsible) 행동<br>지역사회에 대한 저영향(low impact tourism)<br>능동적 / 교육적 · 가치 지향적 · 자기계발 |
| 공간적 특징 | 색다른 장소(extraordinary site)<br>3S(sun, sand, sea): 해안지역<br>관광지의 공간적 집중                                                                                              | 일상적 장소(general interest site)<br>경제, 문화, 스포츠, 교육 등의 장소(즉 모든 장소)<br>관광지의 공간적 확대                                                                                                                                                          |

자료: Krippendorf, 1982, table 1과 Mowforth and Munt, 1998, Box.3.3에 글쓴이의 견해를 추가하여 재구성함.

들 간의 경계가 소멸되고 있다. 관광 역시 체험관광이라는 형태에서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대적 관광에서는 관광생산자층의 하나인 지역사회와 관광객간의 교류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탈현대적 관광에서는 관광객이 지역사회와 교류하면서 체류하기 원하고 있고, 그들의 살아 숨쉬는 문화를 향유하고 싶어한다. 결국 관광객과 지역주민간의 교류를 통해 양자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생태관광을 통해 관광과 환경보전활동과의 경계가 모호해졌고, 지속가능한 관광을 통해 관광과 환경교육간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또한 컨벤션과 같은 경제활동은 관광과의 구분이 모호해졌으며,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국제적 스포츠 행사는 단순히 스포츠의 관람을 넘어 관광의 행태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관광을 통한 사회적 분화는 이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관광행위가 사회 전반을 반영하고 투영하는 하나의 표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탈분화의 양상은 다시 공간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대중관광의 경우는 색다른 볼거리를 창출하는 장소, 다시 말해 경승지나 해수욕장 같은 특정장소를 중심으로 관광지가 입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안관광의 경우는 사회 각 부문의 탈분화를 통해 모든 사회적 행위가 가능한 일상적 장소에 관광지가 입지하게 되고, 다양한 활동이 수반되는 모든 장소가 관광지화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결국 대중관광의 시기에서는 특정장소를 중심으로 관광지의 공간적 집중이 나타날 수 있고, 대안관광의 시기에서는 모든 장소가 관광지화됨으로써 관광공간의 확산이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

### 3. 탈분화의 공간적 반영

#### 1) 제주관광의 변화

제주도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대한민국 제1의 관광목적지다. 아열대성 기후와 화산지형, 그리고 그것에 기반을 둔 인문환경의 독특성은 육지에서 볼 수 없는 이국적이고 환상적 이미지를 발현 시킴으로써, 제주도가 관광을 통해 개발될 수 있는 양호한 조건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 결과 많은 수의 육지관광객이 제주도를 방문함으로써, 제주도는

명실상부한 관광지로 부각되었고, 실제 관광객 수와 그것으로 인한 관광수입은 IMF사태 이후를 제외하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2년 현재 관광객 방문이 450만명에 달하고 있고, 1960년 1,400만원에 불과하던 관광수입은 2002년 현재 1조 6천억원에 이르고 있다(그림 1). 또한 관광산업이 제주도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25% 내외이며, 그로 인해 파생된 고용은 간접고용까지 합쳐 제주도 총 고용의 70%에 달하고 있다(제주도, 2003).

제주도 관광산업의 이러한 성장은 대중관광중심의 관광개발에 의한 결과이며, 이는 적어도 1980년대 후반까지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에 제주관광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는 공급자 측면과 수요자 측면으로 대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전자는 관광개발주체의 변화로 압축될 수 있다. 기존의 관광개발은 국가, 기업, 혹은 자본가에 의한 대규모 개발이 대부분이었기에 제주도민은 관광개발의 모든 과정에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지역개발사업에서의 지역주민의 배제는 여러 유형의 부정적 결과를 양산하였다.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관광수익의 도외(島外) 유출<sup>7)</sup>, 외지인 토지소유문제<sup>8)</sup>, 고용의 질적 문제 등이 나타났고<sup>9)</sup>,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관광객과 제주도민간의 공간적 격리<sup>10)</sup>, 관광객 행동의 전도(轉倒)를 통한 관광객과 제주도민간의 반목<sup>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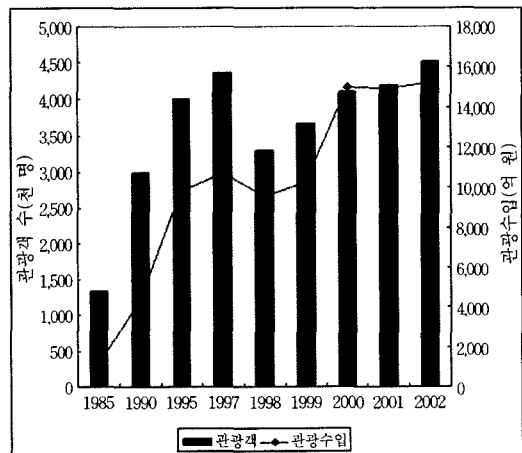


그림 1. 내도관광객수 및 관광수입 변화  
자료: 제주도, 1990; 2003(통계연보).

소비문화의 도입을 통한 지역의 향락화와 그 결과 나타나는 범죄발생률의 증가 등이 있다<sup>12)</sup>.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관광객의 대량방문으로 인한 관광지 환경의 파괴, 쓰레기 문제<sup>13)</sup>, 지하수 수위강하 및 수질오염의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제주도민들은 이러한 과정을 목격함으로써 관광개발에 대한 부정적 담론을 형성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1990년대 초반에 제기된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제정과정에서 표출되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제정이후 제주지역개발은 어느 정도 제주도민 주도로 전환되기 시작했고, 관광분야에서는 관광개발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오정준, 2003).

한편 수요자의 측면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대안관광의 등장으로 대표될 수 있다. 이는 관광객 기호의 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관광지, 관광자원, 그리고 관광행동에 대한 추구라고 볼 수 있다. 대중관광중심의 관광개발을 통해 형성된 관광지와 관광자원으로는 다변화된 관광객의 기호를 더 이상 충족시켜주지 못했기에 이에 부합되는 새로운 장소에 대한 방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관광객의 행동양식 또한 기존의 위락적인 측면을 벗어나 교육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광지의 선택과 관광객 행동양식을 좌우하는 관광객의 기호는 자신들만의 행동양식이나 취향들을 달리하는 사회적 계급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계급간에는 일상생활의 행동양식을 통해 다른 계급과 자신을 구별하려는 '분류의 투쟁(classificatory struggles)'이 전개되는데<sup>14)</sup>, 대안관광을 지지하고 있는 신중단계급<sup>15)</sup>은 노동계급이 주도하는 대중관광과의 구별을 조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만의 정체성을 차별화시키고 있다.

대안관광의 등장을 통해 제주도의 관광이 어느 정도 대중관광의 양상에서 탈피하는 양상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먼저 여행형태별 관광객 변화에서 관찰이 가능하다. 1990년에는 일반단체 관광객이 21.0%를 점유하고 있었으나 2000년의 경우 15.2%로 감소하고 있고, 반대로 개별관광객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대중관광의 대표적 특징이 표준화를 통한 패키지 단체관광이고, 대안관광은 개별화된 개인관광객이 중심이라는 것을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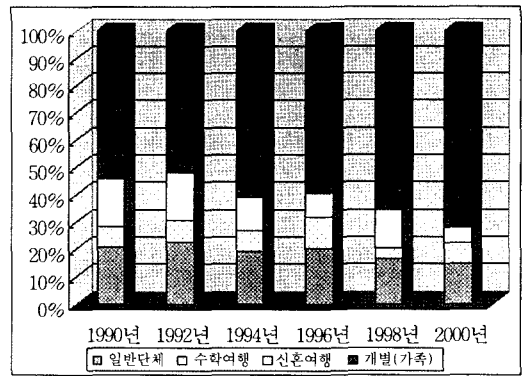


그림 2. 여행형태별 관광객 변화  
 자료: 제주발전연구원, 2001a; 2001b.

한다면 그림 2에서 나타난 단체관광객의 감소와 개별관광객의 증가는 관광양상의 점진적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관광객의 구성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예전에는 신혼여행객과 일반 단체관광객, 그리고 수학여행객의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낮아지는 상태에 있고, 상대적으로 가족 중심의 개별관광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제주발전연구원, 2001a).

한편 제주도를 대표하는 대중관광지<sup>16)</sup>의 관광객 감소현상을 통해 대중관광의 침체와 대안관광의 성장을 목격할 수 있다<sup>17)</sup>(표 2). 제주도를 대표하는 주요 대중관광지로는 한라산국립공원 및 해수욕장, 그리고 폭포관광지(천지연, 천제연, 정방), 동굴관광지(만장, 협재, 쌍용), 산굼부리, 성산일출봉 등의 자연형 관광지와 삼석혈, 목석원, 항몽유적지 등의 인문형 관광지, 그리고 산방굴사, 민속자연사 박물관 등의 복합형 관광지가 있다. 대중관광의 성장시기인 1985년의 통계를 보면 제주도를 방문하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이들 관광지를 공히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천지연 폭포의 경우는 당시 내도관광객 132만명의 53.2%에 해당하는 70만명이 방문하였고, 만장굴 68만명, 민속자연사박물관 60만명, 협재 및 쌍용굴 58만명, 그리고 성산일출봉에는 42.3%에 달하는 52만명이 방문하였다. 이중 민속자연사 박물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연형 관광지로서, 대중관광객의 지향점인 자연관광지로의 방문이 지배적임을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관광객의 행동양식이 단순히 '보는 관광'에 치중

표 2. 제주도내 대중관광지의 관광객 감소 현황

| 구분             | 1985년      | 1990년        | 1997년        | 1998년        | 2000년        | 2002년        |
|----------------|------------|--------------|--------------|--------------|--------------|--------------|
| 총 내도(來島) 관광객 수 | 1,322      | 2,992        | 4,363        | 3,291        | 4,110        | 4,515        |
| 민속자연사박물관       | 606 (45.8) | 1,163 (38.8) | 1,204 (27.6) | 644 (19.5)   | 948 (23.0)   | 841 (18.6)   |
| 삼성혈            | 507 (38.3) | 832 (27.8)   | 460 (10.5)   | 229 (6.9)    | 265 ( 6.4)   | 218 ( 4.8)   |
| 목석원            | 302 (22.8) | 677 (22.6)   | 1,023 (23.4) | 532 (16.1)   | 526 (12.7)   | 392 ( 8.6)   |
| 천지연 폭포         | 704 (53.2) | 1,627 (54.3) | 1,845 (42.2) | 1,293 (39.2) | 1,517 (36.9) | 1,522 (33.7) |
| 천제연 폭포         | 412 (31.1) | 1,418 (47.3) | 1,059 (24.3) | 618 (18.7)   | 569 (13.8)   | 551 (12.2)   |
| 정방 폭포          | 561 (42.4) | 859 (28.7)   | 798 (18.2)   | 540 (16.4)   | 590 (14.3)   | 531 (11.7)   |
| 만장굴            | 681 (51.5) | 1,174 (39.2) | 1,040 (23.8) | 531 (16.1)   | 580 (14.1)   | 528 (11.6)   |
| 협재굴 및 쌍용굴      | 587 (44.4) | 1,325 (44.2) | 1,287 (29.4) | 789 (23.9)   | 1,172 (28.5) | 1,102 (24.4) |
| 산굼부리           | 513 (38.8) | 1,185 (39.6) | 1,589 (36.4) | 882 (26.8)   | 1,124 (27.3) | 1,039 (23.0) |
| 산방굴사           | 174 (13.1) | 859 (28.7)   | 1,227 (28.1) | 648 (19.6)   | 759 (18.4)   | 758 (16.7)   |
| 성산 일출봉         | 560 (42.3) | 1,313 (43.8) | 1,111 (25.4) | 638 (19.3)   | 767 (18.6)   | 887 (19.6)   |
| 항몽 유적지         | 99 ( 7.4)  | 236 ( 7.8)   | 214 ( 5.0)   | 82 ( 2.4)    | 138 ( 3.3)   | 131 ( 2.9)   |
| 제주민속촌          | -          | 310 (10.3)   | 215 ( 4.9)   | 282 ( 8.5)   | 485 (11.8)   | 396 ( 8.7)   |
| 퍼시픽랜드          | -          | 592 (19.7)   | 510 (11.6)   | 274 ( 8.3)   | 364 ( 8.8)   | 325 ( 7.1)   |
| 신천지미술관         | -          | 117 ( 3.9)   | 203 ( 4.6)   | 110 ( 2.5)   | 118 ( 2.8)   | 77 ( 1.7)    |
| 제주조각공원         | -          | 174 ( 5.8)   | 254 ( 5.8)   | 142 ( 4.3)   | 149 ( 3.6)   | 171 ( 3.7)   |
| 여미지 식물원        | -          | 585 (19.5)   | 1,478 (33.8) | 1,019 (30.9) | 1,282 (31.1) | 1,278 (28.3) |
| 해수욕장(10개소)     | 264 (20.0) | 519 (17.3)   | 398 ( 9.1)   | 316 ( 9.6)   | 420 (10.2)   | 451 (10.0)   |
| 한라산 국립공원       | 185 (14.0) | 362 (12.1)   | 542 (12.4)   | 550 (16.7)   | 545 (13.2)   | 425 ( 9.4)   |

자료: 제주도, 1990·2003, 제주통계연보.

- 주 1. 단위: 천명, 괄호 안은 연중방문객 비율(연중방문객 비율 =  $\frac{\text{각개관광지 방문객 수}}{\text{내도 관광객 수}} \times 100$ )
2. 해수욕장 방문객 수는 통계가 구비된 제주도내 해수욕장 10개소에 대한 총합임.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시간이 진전될수록 변화하고 있다. 각개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의 절대적 감소는 차제에 두더라도 내도관광객 수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은 더욱 감소추세에 있다. 특히 IMF사태 이전까지는 절대적 성장이 다소 나타나고 있으나, 그 이후로는 대부분의 관광지에서 절대적 성장조차 나타나고 있지 않다. 2002년의 통계를 보면 천지연 폭포는 152만명이 방문함으로써 총 관광객 수의 33.7%에 해당되고 있으나, 이는 1985년의 53.2%에 비해 20%가량 감소된 비율이다. 협재굴이나 산굼부리의 경우도 20%정도 감소된 비율이 나타나고 있고, 민속자연사박물관과, 삼성혈, 정방폭포, 성산일출봉의 경우는 30% 정도가, 그리고 만장굴의 경우는 40%정도의 비율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삼성혈, 정방폭포, 만장굴의 경우는 방문객의 절대적 숫자 또한 감소상태에 있

다. 단지 유일하게 산방굴사만이 1985년에 비해 절대적, 상대적 성장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 역시 IMF사태 이후론 감소상태에 있다. 한편 대중관광을 가장 극적으로 대표하는 해수욕장 관광지와 한라산국립공원 역시 상대적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1990년 이후에 조성된 제주민속촌, 퍼시픽 랜드, 신천지 미술관, 제주조각공원, 여미지 식물원 등도 위의 관광지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단 여미지 식물원의 경우는 아직까지 많은 수의 관광객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2002년 현재 451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은 기존의 관광지와는 다른, 다시 말해 새로운 관광지를 방문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최근 신영제주영화박물관, 소인국 테마파크, 일출랜드, 미니월드, 테디베어뮤지엄과 같은 새로운 관광지가 조성되고 있고, 다수의 지역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나 이들 만으론 관광지당 관광객 점유율의 감소를



설명할 수 없다<sup>18)</sup>. 결국 새로운 관광지외 장소에 대한 방문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데, 이는 최근에 부각된 생태, 문화, 체험, 녹색, 농촌관광 등의 대안적 관광형태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대형 패키지 관광회사의 현지 가이드는 대중관광객이 감소되는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옛날에 비해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들 하지만, 어디로들 가는지 모르겠어요. 예전보다 신혼여행객도 안 보이고, 단체관광객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관광지(대중관광지를 지칭함)에 가는 것도 아니고, 축제기간에도 그리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아요 ... 중략 ...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차를 타고 중산간을 지나가다 문득문득 사람들을 발견해요. 또한 주차해 있는 차도 보이구요. 예전에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이었는데 ... 무슨 생태체험인가 그런 것 때문에 온다고들 해요. 근데 그게 돈이 될런가 모르겠어요”.

대형 패키지 관광회사의 가이드는 대안적 관광형태에 대한 존재는 인정했으나, 그것의 구체적 양상과 발전양상에 대해선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대안적 관광형태에 대한 경제적 영향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이는 공무원과의 면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북제주군의 관광담당 공무원은 관할 소재지의 대안관광지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것을 관광지로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오로지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숙박업소와 같은 관광관련 편의시설물의 조성 및 관리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듯 했다<sup>19)</sup>. 최근 대안적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하고있는 제주문화개발원의 대표는 앞선 인식들을 두고 대중관광의 사고에 묻혀버린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주장하였다.

“제주관광 하면은 시설개발만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광지 개발하고, 호텔 짓고 그리고 관광객 유치하면 된다는 생각이지요. 다시 말해 하드웨어만 생각하지, 관광상품 개발과 같은 소프트웨어는 전혀 생각을 안해요. 공무원, 업자, 가이드 할 것 없이 마찬가지로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두 번 이상 오면 볼 것이 없다고 그래요”.

제주문화개발원이 개발한 관광상품을 보게 되면 대안관광의 전형적인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관광상품의 주제화, 전문화, 지성화로 대표될 수 있다. 먼저 주제화는 특정 주제를 통한 심층적 관광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광객이 가지고 있는 특정기호나 관심을 통해 관광지나 관광자원의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생태, 문화, 역사, 오름, 동굴 등의 특정 주제를 통해 제주도를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주문화개발원은 제주문화민속기행, 제주자연생태기행, 제주역사기행, 제주4.3역사기행 등의 네 가지 주요 기획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에게 공급하고 있다. 제주역사기행의 예를 들자면 선사시대, 탐라시대, 조선시대, 일제시대 등의 시대중심이나, 유배, 항쟁, 방어(군사) 등의 주제를 통해 그것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메타포(metaphor), 다시 말해 유물과 유산에 대한 방문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지성화(intellectualization)와 전문화(professionalization)는 관광의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문화적 자본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대안관광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제주문화개발원은 전문 가이드의 활용을 통해 대안관광객의 학습적 욕구를 해소해 주고 있다. 기존의 관광회사가 일반적인 관광 가이드를 고용해서 관광의 일반적 ‘안내자’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데 반해, 제주문화 개발원의 가이드는 ‘지식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전문 가이드는 대부분 박사학위 취득자 이상의 전문가임과 동시에 그들의 전공 분야 역시 역사, 문화, 삼림자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sup>20)</sup>. 따라서 이들은 ‘학습’하려는 대안관광객의 욕구를 훌륭하게 만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환경의식의 고취와 같은 계도 혹은 계몽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이 지식의 ‘해설’보다는 전달 및 계몽으로까지 발전하기에 관광객의 성찰성(reflexivity)은 아직까지는 목격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sup>21)</sup>.

## 2) 제주관광공간의 변화

대중관광중심의 제주관광개발은 ‘양적 성장’을 지향해왔다. 대량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공항 및 항만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은 물론이고 대규모 숙박시설과 같은 관광관련 편의시설을 확충했으며, 관광지와 관광단지 개발에 주력하여왔다. 그 결과 많은 수의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상당량의 관광수익이 파생되었다. 그러나 시설 위주의 하드웨어 개발에 중점을 두는 관계로 관광상품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소홀하게 취급되었으며, 기존에 개발된 관광상품은 지역의 고유성(authenticity)과는 무관하게 생산되었다. 제주호텔의 카지노는 라스베가스를, 표선 민속촌은 안동하회마을과 용인 민속촌을 모방한 것에 불과했다. 따라서 제주의 관광상품은 독특한 지역이미지를 반영하지 못한 채, 범지구적인 이미지를 각색한 어중간한 모자이크에 불과했다(현창국, 2000). 그 결과 대중관광에서의 관광상품과 관광지는 다변화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다<sup>22)</sup>.

대중관광을 지향하는 대규모 관광회사의 관광루트는 자연위주의 색다른 관광자원과 그 주변의 쇼핑시설로 국한되어 있다. 여행일정을 2박 3일이라고 전제했을 때, 대개 한라산을 중심으로 서회전루트와 동회전 루트가 하루씩 진행된다. 전자에 포함되는 주요 관광지로는 천지연폭포, 여미지 식물원, 산방굴사 등의 유료관광지와 용두암, 석굴원 등의 무료관광지, 그리고 잠수함, 유람선, 마상쇼

등의 선택관광이 포함된다. 그리고 중식과 석식을 전후로 쇼핑시설의 방문이 이루어진다. 후자도 이와 유사하다. 산굼부리 등의 유료 관광지와, 도깨비 도로, 일출봉 해변, 종달리 해안도로, 섭지코지(드라마 촬영지) 등의 무료관광지, 그리고 쇼핑시설의 방문이 주종을 이룬다. 각개 관광지에 대한 방문시간은 대개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구성되나, 쇼핑시설의 경우 식사시간을 합쳐 2시간이나 3시간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관광지의 체류시간이 매우 짧게 순환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반면 쇼핑시설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3)</sup>.

팩키지 관광회사의 관광코스가 대부분 단순하고, 쇼핑부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는 여행업계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그들의 거주지에 위치한 관광회사의 상품을 구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관광회사들은 거주지→관광지→거주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지 않고, 관광지역의 관광회사에 위탁관광료(land fee)를 지불함으로써 관광지에서의 관광객 관리를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광객이 지불한 대부분의 관

표 3. 제주도의 대중관광개발과 대안관광개발의 특징

| 구분      | 대중관광(지) 개발                 | 대안관광(지) 개발                                             |                                                       |
|---------|----------------------------|--------------------------------------------------------|-------------------------------------------------------|
| 대표 특징   | 대중화, 일반화                   | 주제화, 지성화, 전문화                                          |                                                       |
| 시기      | 1960년대~현재                  | 1990년대 중반~현재                                           |                                                       |
| 규모      | 대규모                        | 소규모                                                    |                                                       |
| 주체      | 국가, 제주도, 관광운영자             | 제주도, 관광운영자, 지역사회, 관광객                                  |                                                       |
| 자본·기술   | 외부                         | 내부                                                     |                                                       |
| 관광형태    | 대중관광 위주                    | 대안관광 위주(생태, 녹색, 문화관광)                                  |                                                       |
| 시설(有/無) | 시설위주개발(有)                  | 상품위주개발(無)                                              |                                                       |
| 법률근거    | 법률에 근거(법적 관광지)             | 법률에 근거하지 않음(자연발생적 관광지)                                 |                                                       |
| 입장료     | 대부분 유료                     | 대부분 무료                                                 |                                                       |
| 관광상품    | 비고유성(inauthenticity)       | 고유성(authenticity)                                      |                                                       |
| 관광객     | 단체관광, 신혼여행, 수학여행           | 단체관광(답사), 개별여행, 가족단위여행                                 |                                                       |
| 관광객 특성  | 위락적                        | 교육적, 가치 지향적                                            |                                                       |
| 관광객 행동  | 수동적(방문→관람)                 | 능동적(동기→방문→관람/체험→학습)                                    |                                                       |
| 관광지 입지  | 색다른 장소(extraordinary site) | 일상적 장소(general interest site)                          |                                                       |
| 주요 관광지  | 자연 자원                      | 한라산 국립공원, 성산 일출봉, 해수욕장, 폭포관광지, 비자림, 산방굴, 산굼부리, 동굴관광지 등 | 송악산 2중 분화구, 지사개 주상절리, 오름관광지, 종달리 체험어장, 하도리 철새탐조장 등    |
|         | 인문 자원                      | 항몽유적지, 제주민속촌, 민속자연사 박물관, 신천지 미술관, 분재예술원, 제주조각공원, 삼성혈 등 | 선사·탐라·조선역사유적지(고인돌, 삼성혈, 제주향교 etc.), 유배·방어, 일제, 43유적 등 |
|         | 기타                         | 신영영화박물관, 퍼시픽 랜드 등                                      | 한라산 어승생 트레킹, 감귤체험농원 등                                 |

자료: 오정준, 2003.

광료는 항공회사와 호텔비용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위탁관광료로 지불되는 것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로 말미암아 현지 관광회사는 사전 연계된 쇼핑업소와 음식점을 관광루트에 포함시킴으로써 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그 결과 쇼핑에 근거한 장소로의 방문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관광지 방문은 최소화시키고 있다(제주발전연구원, 2002). 패키지 관광회사는 특히 해안에 입지한 자연관광지를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무료 관광지가 많을뿐더러 해안도로와의 용이한 접근성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무료관광지라 할지라도 외돌개와 같이 상인 밀집지역은 관광코스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주변 상가가 밀집해 있는 성산일출봉의 경우는 관광객들을 하차시키지 않은 채, 차내(車內)관광을 실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관광객의 쇼핑욕구를 최대한 억제시킴으로써, 차후 방문하는 쇼핑시설을 활용하기 위함이다<sup>21)</sup>. 결국 패키지 관광회사의 관광상품

및 관광코스는 자연관광과 쇼핑관광위주의 매우 단순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그림 3).

그러나 대안관광상품의 경우는 주제화, 지성화, 전문화를 추구함으로써 심층적인 관광자원을 소비할 수 있는 관광지의 방문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제주도에 대표할 수 있는 대안관광지로는 생태관광지, 체험관광지, 그리고 역사·문화관광지가 있다. 생태관광지의 경우는 제주도의 고유한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활동과 환경교육활동이 수반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기존의 대중관광지에서 목격할 수 있는 제주의 생태계는 고유성이 결여된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여미지 식물원의 경우 제주도의 자생식물보다 세계의 각종 식물들을 한곳으로 모아놓은, 다시 말해 식물도감을 방불케 하는 장소였다. 이는 제주도의 식물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수로 진열되어있는 제주식물들은 자생지역에서 이식되어 온 것이다. 대중관광객의 경

표 4. 제주도의 주요 관광상품과 관광코스

| 구분   | 관광상품     | 관광루트                                                                                                                                                     |
|------|----------|----------------------------------------------------------------------------------------------------------------------------------------------------------|
| 대중관광 | 제주패키지 여행 | 1일: 제주공항도착→미팅→호텔이동→휴식(혹은 쇼핑)<br>2일: 용두암→석굴원→산방산→중식(쇼핑)→여미지→관광농원→천자연폭포→선택관광(잠수함, 유람선, 마상쇼)<br>3일: 도개비도로→쇼핑→산굼부리→성읍민속마을→중식→선택관광(승마)→중식→성산 일출봉→섬지코지→공항      |
| 대안관광 | 문화민속     | 1일: 이호동 방사탑→구엄리 소금밭→셋별오름→추사유배지→인성리방사탑→마라도<br>2일: 한라산 산록도로→도개비도로→와흘굴→와흘분향당→아부오름→중식→제주민속촌→조개잡이 체험(중달리)→중달리 해신당→중달리 돌그물→김녕미륵당<br>3일: 동자미륵→서자미륵→제주자연사 박물관→공항 |
|      | 자연생태     | 1일: 신비의 도로→한라수목원→묵석원→제주자연사 박물관<br>2일: 고산수월봉(탄낭구조)→송악산2중분화구→용머리 해안→지삿개 주상절리<br>3일: 와흘굴(용암동굴)→가메웃(붓순나무 군락지)→아부오름→중달리체험어장→구좌읍 하도리(철새탐조)→비자림→공항              |
|      | 역사       | 1일: 제주고인돌→곽지패총→고산리 선사유적지→추사유배지→중식→대정 향교→일제시대 군사유적<br>2일: 민속자연사박물관→성읍민속마을→방어유적(수산진성, 환해장성)→북촌고두기 언덕(유적)→항일기념관→연복정<br>3일: 제주목 관아지→관덕정→제주성지(오현단)→삼사석→삼성혈→공항 |
|      | 4.3기행    | 1일: 원동마을→동광리 큰넙재→중식→백조일손지묘→알뜨르비행장→송악산 해안동굴<br>2일: 와흘굴→낙선동성터→다랑쉬 오름→다랑쉬굴→성읍민속촌→수마포동굴→북촌초등학교→함덕해수욕장→공항                                                     |

주 1. 대안관광은 제주문화개발원의 2002년 상품임.

2. 대중관광은 참여관광 관광회사의 2003년 상품을 종합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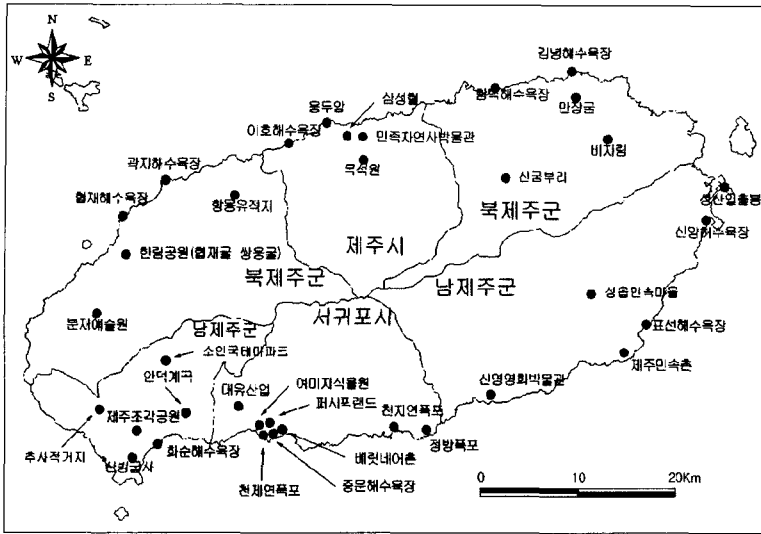


그림 3. 제주도의 주요 대중관광지

주 : 참여관찰대상 관광회사의 주요 관광지를 종합한 것임.

우 여미지 식물원에 산재하는 관광자원에 대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대안관광객들은 관광자원의 고유성을 문제삼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문을 회피한다. 그들은 제주도의 식물들을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관찰하기 원하므로 자생지로의 방문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 예는 제주 문주란의 자생지인 '난도'로의 방문이며, '하도리'의 철새도래지 역시 제주의 조류상을 자연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장소이다. 또한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대표할 수 있는 지형자원 역시 생태관광지로 부각되고 있다. 지샓개에서 볼 수 있는 주상절리와 수월봉에서 관찰할 수 있는 탄낭구조, 와홀굴 및 만장굴에서 경험할 수 있는 동굴자원, 물영아리 오름에서 볼 수 있는 습지, 그리고 화구호는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관광자원으로서, 고유성이 내포되어 있는 생태관광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그림 4).

체험관광의 경우는 지역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한 체험, 농업과 관광부문과의 탈분화를 통한 감귤농장체험, 그리고 트레킹 및 생태체험과 같이 다양한 활동을 수반하는 체험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지역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한 체험은 예래 생태관광마을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난다<sup>25)</sup>. 관광객들은 이곳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마을 주변의 인문·자연자원을 방문하게 되고, 지역주민간의 교류를

통해 마을을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대안관광의 지향점인 책임 있는 관광(responsible tourism)과 저영향관광(low impact tourism)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농촌관광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 감귤체험농원은 생산의 공간으로 각인되었던 감귤농장이 소비의 공간으로 공존하는 양상을 목격할 수 있다. 관광산업과 함께 제주도의 성장을 견인하던 감귤산업이 쇠락함으로 인해 감귤농가는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sup>26)</sup>,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상되는 것 중의 하나가 감귤체험농장이다. 감귤농가의 입장에서 생산의 공간을 개방함으로써 감귤수익 이외의 부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관광객들에게 있어선 제주감귤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활동을 수반하는 체험관광은 오름관광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지역 언론인에 의해 '오름 나그네'라는 오름 전문서적이 출간되었는데(김중철, 1995), 이는 제주문화담론의 생산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오름에 대한 장소신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이는 다시 오름에 대한 재인식과 관심의 증대로 이어짐으로써 개인적으로 혹은 각종 동호회<sup>27)</sup>를 통해 오름을 방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sup>28)</sup>. 제주도의 대안관광을 주도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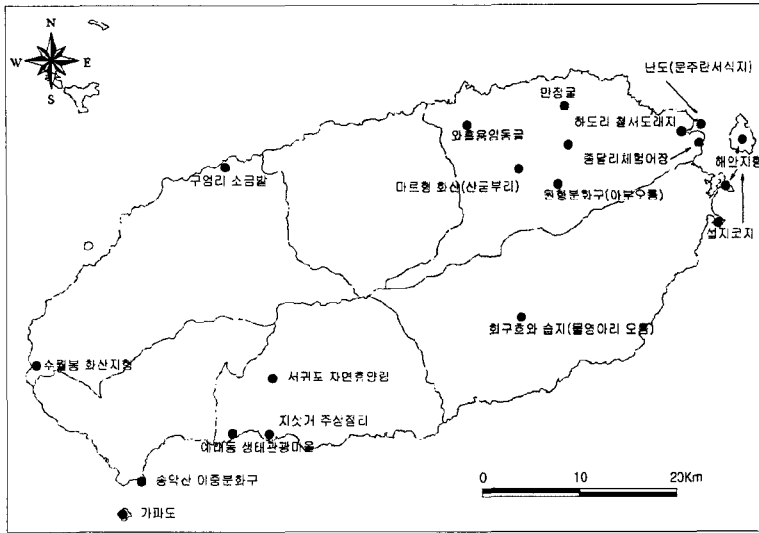


그림 4. 제주도의 주요 생태관광지(제주문화개발원)

제주문화개발원 역시 오름을 관광자원에 포함시킴으로써 육지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오름관광의 대표적 특징은 오름 그 자체에 관한 방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아부오름의 경우는 오름 그 자체의 경관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제주도의 자생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생태체험장이자 이제수의 난과 같은 제주항쟁의 역사를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다량쉬 오름은

제주4.3사건의 현장을 관찰할 수 있는 잔혹유산(dissonant heritage)이자, 4.3사건을 기리는 순례자들의 대표적 방문지가 되고 있다. 한편 트래킹 및 패러글라이딩과 같은 스포츠 활동 또한 오름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 관광행동이다(그림 5).

역사·문화관광지는 제주도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서 제주도민들의 생활공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장소와 중복된다. 최초 가거지(可居地)로서의 선사유적은 대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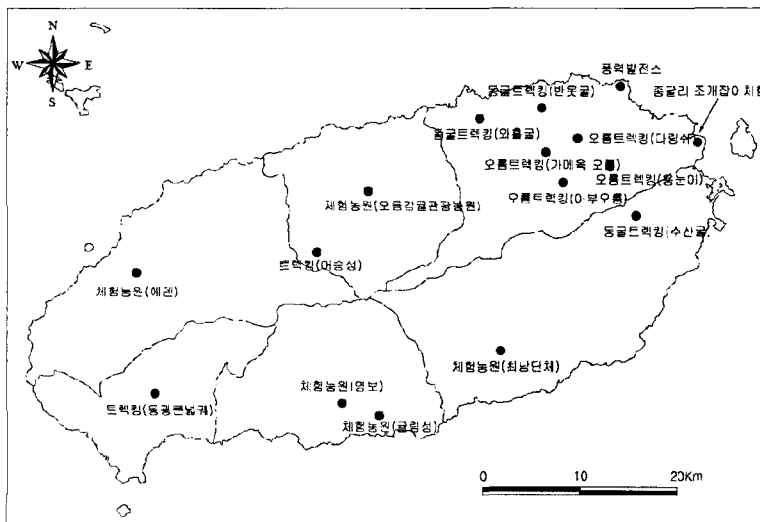


그림 5. 제주도의 주요 체험관광지(제주문화개발원)

분 취수(取水)가 용이한 장소로서 제주도의 자연 발생형 취락을 관찰할 수 있는 장소이며, 탐라시대를 대표하는 삼성혈, 혼인지, 삼성녀 표류지 등은 제주역사의 근원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이다. 또한 박해유적, 방어유적, 항쟁유적, 일제유적, 교육유적 또한 제주도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서, 제주도민들의 일상공간과 중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그림 6).

결국 대안관광지의 입지 특색은 관광지가 경승지 위주의 색다른 장소가 아닌 일반적인 장소에서도 창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중관광객과 혼재되기를 거부하는 대안관광객의 분류의 투쟁과 함께 주제화, 지성화, 전문화를 추구할 수 있는 장소로의 방문은 색다른 장소를 지양하고 일반장소를 지향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관광객 기호와 관심의 다변화로 말미암아 모든 관광행위는 교육, 스포츠, 취미, 사업, 문화의 기능과 경계가 모호해짐으로써, 모든 행위가 관광행위가 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상기된 행위가 가능한 장소에 대해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관광지 아닌 장소에서도 관광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곧 일상과 관광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것을 나타내며, 그것을 구분 짓는 것에 더 이상의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탈분화가 공간적으로 반영됨으로써 관광지가 제주도 전역에

걸쳐 확산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평적 확산과 수직적 확산으로 구분지어 설명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제주도의 대중관광지는 중문관광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서귀포시 일대와 북제주군 일대에 다수 입지하고 있다<sup>29)</sup>. 그러나 대안관광지의 경우는 제주시와 남제주군 위주의 서부지역, 그리고 북제주군 위주의 동부중산간 지역에 다수 입지하고 있다(그림 4, 5, 6). 수직적 확산으로는 중산간 지역으로의 확대가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sup>30)</sup>. 대안관광이 발전함에 따라 중산간 지역에 위치한 관광자원으로의 방문이 활성화 되었는데, 이 지역에 편재된 관광자원의 특징은 제주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의 자연, 역사, 문화, 민속과 관련한 심층적 자원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제주도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장소, 다시 말해 고유성이 포함된 장소가 개발되기에 이르렀고, 관광객은 그러한 장소에서 교육적이며 문화적인 행위와 함께 체험 활동을 하고 있다. 결국 단지 볼거리를 위한 관광행위가 사라지고, 그 대신 다양한 활동이 수반됨으로써 관광과 사회 각 부분의 경계가 모호해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공간적으로 반영됨으로써 관광지의 공간적 확대를 초래하게 되었다(그림 4,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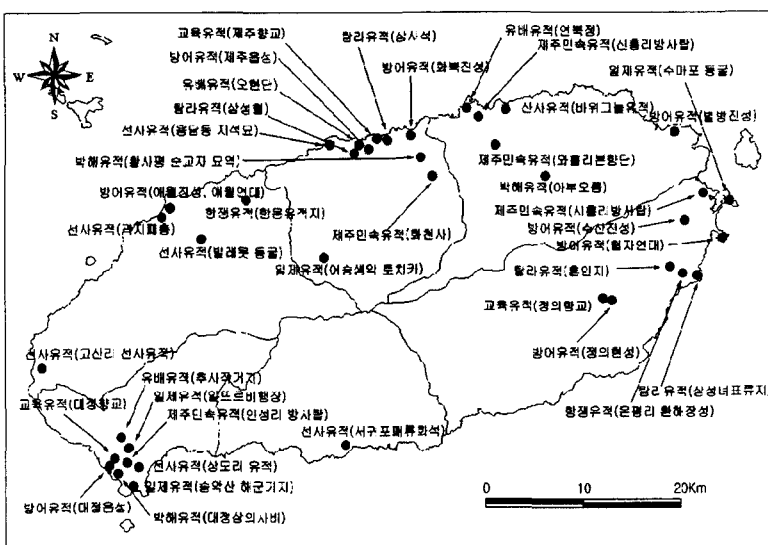


그림 6. 제주도의 주요 역사문화관광지(제주문화개발원)

## 4. 결론 및 제언

## 註

대한민국 제1의 관광목적지인 제주도의 관광양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수요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관광객 기호의 다변화를 통해 새로운 관광상품과 관광지를 선호하고 있으며, 공급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변화된 관광객 기호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관광상품을 유연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관광시장 또한 세분화, 주제화, 전문화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탈현대적 관광, 다시 말해 대안관광으로서, 이는 탈분화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관광은 더 이상 특정한 대상을 경험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있다. 또한 '보는 행위'와 같은 단순한 행동으로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수반함으로써 관광과 사회 제 부문과의 탈분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다시 공간적으로 반영이 되어 나타나는데, 기존의 해안중심의 자연관광지에서 탈피하여 중간산으로의 수직적 확대와 서부지역 및 북제주군 중심의 동부중산간 지역으로의 수평적 확대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탈현대성'과 관련된 새로운 관광현상과 그것의 공간적 반응을 규명하려고 시도한 탐색적 연구이다. 탐색적이자 시론적 연구인 관계로 선행연구가 전무했고, 논리전개를 위한 분석틀의 수립에 어려움이 동반되었다. 뿐만 아니라 관광통계의 미비로 말미암아 논리적 근거로 이용된 자료에 대해 다소 주관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관광현상을 사회이론과 개념을 통해 설명했다는 점에서 작은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관광이라는 현상은 사회와 유리된 현상이 아닌 사회적 반영이고, 공간적 이동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지리적 현상이다. 또한 자금의 관광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동인(動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관광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선 과거에 사용되어왔던 단일 관광지나 단편적 관광현상에 대한 경험적 연구보다는, 생활세계를 설명하기 위한 사회이론을 적용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1) 현대적 관광(대중관광)에 대한 참여관찰은 2003년 2월 25~27일에 실시하였고, 탈현대적 관광(대안관광)은 2002년 11월 17~18일에 실시하였다. 각각의 관광객 집단에 대한 동일항목의 설문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관광객의 행동 및 만족도가 관광자원의 유형 및 계절적 상이성에 쉽게 좌우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관광유형을 표방하는 관광회사의 관광코스는 서로 상이한 관광자원과 관광지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연구자의 한계로 말미암아 동일 시점에서의 조사가 어려웠다. 따라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관광공급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통해 각각의 관광유형에 대한 특징을 추출하였다. 한편 제주도내의 관광전문가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나타낼 수 있다.
- 2) James의 경우는 문화와 경제간의 탈분화가 독점자본주의 단계로부터 다국적 자본주의 단계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난다고 보았다(전경갑, 1998).
- 3) 여행(travel)의 어원이 travail이었다는 점이 이를 대표적으로 예증한다. travail은 영어나 불어에서 공히 '어려운 일', '힘든 일', '진통', '산모의 산고' 등을 의미한다. 결국 예전의 여행은 산모의 산고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이다.
- 4) Munt가 제기한 실제적 휴가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대중 패키지 관광객과 구별되는 real holiday traveller의 공간적 실천을 포함한다. 이는 Bourdieu가 주창한 일종의 분류의 투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적 휴가를 갈망하는 여행객들은 대중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장소와 차별적인 장소를 방문함으로써, 그들과의 '구별짓기'를 통해 자신만의 계급 정체성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전문가적 에이전트와 관광조작자의 출현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Poon이 명명한 신관광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전문적 관광조작자와 에이전트는 관광객의 다변화된 기호를 고려함으로써 관광상품을 유연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이다(Munt, 1994).
- 5) 한편 탈현대적 관광을 다른 측면으로 고려하는 학자도 존재한다. Feifer는 포스트 관광(post-tourism)이라는 형태를 제시하면서 이를 추구하는 포스트 관광객은 진짜 관광경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제 알고 있으면서, 비고유성(inauthenticity)을 통해 오히려 즐거움을 발견한다고 주장하였다(Feifer, 1985; Urry, 2002에서 재인용). 포스트 관광에서의 핵심은 모방이나 초실재(hyper-reality) 관광자원의 소비인데, 다시 말해 기존의 비실재적(unreal) 관광자원이나 실제적(real) 관광자원의 경험보다는 초실재적 관광자원의 경험을 원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관광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포스트 관광의 본질은 초실재 공간에 대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Baudrillard(Baudrillard, 1981)와 Eco(Eco, 1986)에 의해 제기된 포스트모던한 초공간(hyperspace), 다시 말해 디즈니랜드와 같은 시뮬라크르(simulacres)에 대한 경험과 방문을 의미하는 것이다.

- 6) 대표적인 예로는 학구적 관광(academic tourism), 모험관광(adventure tourism), 농업관광(agro-tourism), 고고학 관광(archaeo-tourism), 문화관광(culture tourism), 생태관광(eco tourism), 민족관광(ethnic tourism), 녹색관광(green tourism), ... 중략 ... 야생관광(wildlife tourism) 등이 있다(Mowforth and Munt, 1998).
- 7) 1989년에서 1993년 동안의 자금의 역외유출은 1조 5,523 억원으로서 유입의 5,890억원에 비해 2.6배에 달한다 <조선일보 1995년 11월 24일>.
- 8) 제주도의 외지인 토지소유비율은 전체면적의 45%에 달한다 <매일경제 2002년 3월 19일>. 그러나 국·공유지를 제외하면 순수한 제주도민소유의 토지는 더욱 감소될 것이다.
- 9) 제주도의 단순노동자 인구비율은 14.1%로서 전국 2위에 해당되며, 교육정도별 취업인구는 초졸 이하가 23.3%(전국: 18.5%), 대졸 이상이 13.7%(전국: 17.1%)으로서 제주도에서 창출되는 고용의 질이 낮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00, 시도별 직업별 취업자: <http://www.nso.go.kr>).
- 10) 관광지는 대개 지역주민의 생활공간과 지근(至近)거리에 입지하지만, 관광시설의 화려함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시설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민들 역시 자신들의 생활공간을 관광객에게 내어주고, 그것에 접근하지 못하는 양상이 전개됨으로써 관광객과 지역주민간의 공간적 격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오정준, 2003).
- 11) 대부분의 관광객은 자신의 거주지와는 다른 행동을 관광지에서 표출하고 있다. 이를테면 거주공간에서의 규범적이고 엄격한 생활이 관광지에 가서는 비규범적이고 유연한 활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Graburn, 1983). 이를 전도(inversions)라고 하는데, 전통적으로 육지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민들은 이와 같은 관광객 행동을 목격함으로써 관광객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
- 12) 인구 만명당 범죄 발생율은 일반적으로 관광지의 성격을 갖는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도시지역, 촌락지역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는 352건으로 전국 1위이며, 그 다음으로 강원지역(338건), 광주광역시(336건), 서울(334건), 대구(295건)의 순서이다(김갑성 외, 1997).
- 13) 제주도의 경우 상주인구의 7배에 해당하는 관광객이 방문함으로써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1인당 1.01kg으로서 전국 평균인 0.96kg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01, 시도별 생활폐기물 발생량: <http://www.nso.go.kr>).
- 14) '분류의 투쟁'은 Bourdieu가 제시한 '아비투스(habitus)' 개념에서 비롯될 수 있다. 그는 문화적 취향, 가치, 태도와 같이 한번 몸에 배인 행동양식은 쉽사리 바꿀 수 없고, 그것을 통해 생활스타일이 결정되며, 사회계급은 위나 아래계급으로부터 차별화가 유지되게끔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한다고 보았다(홍성민, 1997). Bourdieu의 '아비투스' 개념을 관광에 적용한 대표적 학자는 Mowforth와 Munt로서, 사회계급간의 분류의 투쟁은 상이한 관광공간의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Mowforth and

- Munt, 1998).
- 15) 신중단계급(new middle class)은 경제적 자본은 취약하나 상대적으로 문화적 자본을 가지고 있는 계급으로서 신부르조아 계급과 노동계급간의 중간에 포진하는 계급이라고 볼 수 있다. Lash와 Urry는 이들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계급이며, 포스트모더니즘을 통해 헤게모니를 쟁취한다고 보았다(박형준·권기돈 역, 1998). 한편 Mowforth와 Munt는 신중단계급이 관광지를 선택하는 과정은 곧 헤게모니를 쟁취하는 공간적 투쟁이라고 보았다(Mowforth and Munt, 1998).
- 16) 대중관광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광지로서 대중관광지로서의 구분기준은 글쓴이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것이다(관광진흥법 제 50조에 해당되는 법적관광지, 패키지 관광을 주도하는 관광여행사의 관광상품에 포함된 관광지, 시설개발을 통해 조성된 관광지, 유료관광지).
- 17) 대안관광지의 관광객 방문 수를 통해 대안관광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분석으로 볼 수 있으나, 대안관광지는 대부분 입장료를 받지 않음과 동시에 체계적인 관광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방문객수에 대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 18) 제주관광에서 축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월별 총 관광객수와 월별 축제의 개최빈도를 통해 비교가 가능하다. 만약 제주관광에서 축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면, 축제가 가장 많이 개최되는 9월에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가 증가할 것이고, 축제의 개최가 전무한 11월에는 상대적으로 관광객의 수가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관관계는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다. 2002년 관광객의 월별 방문현황은 9월에 317,567명이고, 11월에는 394,590명이다. 9월의 경우는 월평균 관광객 376,292명에 미치지 못하고, 11월의 경우는 이를 초과하는 수준이다(제주도, 2003). 이는 곧 제주관광에서 축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반영해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 19) 북제주군 관광담당 공무원과의 면접과정에서 도출된 결과임.
- 20) 해외에서는 Andrew Goudie와 같은 지리학자 대학교수들이 Academic Travel, Adult Education Study Tours, Temple World와 같은 대안적 관광회사의 전문가이드(guest leader)로 활동하고 있다(Mowforth and Munt, 1998).
- 21) 현대성이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문화담론의 생산자가 지식인 혹은 전문가 집단이었다. 그 이유는 현상에 대한 수많은 질서와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선 엄청난 양의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지식인의 중재적 작업을 통해 어떤 문화가 소위 상위문화이고, 혹은 하위문화인가 라는 '입법하는'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작업을 통해 무수한 장소신화가 만들어졌고, 그것은 곧 관광지의 형성으로 이어졌다(심승희, 2000). 그러나 탈현대성은 확실성의 종언을 의미한다(박형준·권기돈 역, 1998). 총체론적 거대설화와 같은 절대불변의 진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상호간 비교할 수 없이 다양한 미



소설화가 지식 정당화의 근거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탈현대의 시대는 '성찰적 주체'를 만들어내는 조건을 제공한다. Lash와 Urry는 주장하였다. 개인화의 과정을 통해 사회구조의 타율적 통제나 감시로부터 벗어나려는 과정이 나타나며, 비전문적 대중이 전문가 체제자체를 성찰적으로 의문시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계몽주의 사상에 입각한 지식인들은 입법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다양한 지식을 연결하는 조정자나 해석자(interpreter)로서의 역할로 전환되고 있다(박형준·권기돈 역, 1998). 결국 문화담론의 생산자로서의 지식인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개인의 성찰을 통해 문화산업과 그것의 하부영역인 관광의 발전이 나타나고 있다.

- 22) 이는 대중관광이 포드주의를 통한 이윤 획득의 극대화 에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관광지과 관광상품은 고정된 생산방식을 통해 대량으로 생산되었고, 그 결과 고유성이 결여된 관광 지가 개발되고, 대부분의 관광상품은 지역특성과는 유리 된 비실재적 자원으로 충만되었다.
- 23) 참여관찰을 통해 추출된 결과임.
- 24) 참여관찰을 통해 추출된 결과임.
- 25) 예태동은 중문관광단지 개발과정에서 상당수의 부정적 영향을 경험함으로써 마을주민간에 관광개발에 대한 부정적 담론이 지배적으로 형성된 마을이다. 특히 중문하 수종말처리장 입지반대운동을 거치면서 마을주민들의 담론이 표출되었고, 이를 통해 환경의식의 고취와 주민 통합이 이루어진 마을이다. 최근에는 실천적인 대안사업 으로 예태생태관광마을을 조성하고 있다(오정준, 2003).
- 26) 무분별한 감귤행정, 감귤 재배면적 및 감귤 생산량의 증 가로 말미암아 감귤가격은 4년째 폭락을 거듭하여 현재 는 회복 불가능한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대도시 공판장에서 1998년 948원(kg당)에 거래되었던 것이 2001년에는 559원이었고, 2003년 2월에는 270원대로 폭락했 다. 감귤의 생산원가가 대략 400원 정도이라는 점을 감안 할 때, 출하량이 많을수록 감귤농가의 피해는 더욱 커 지게 된다(新東亞, 2003)
- 27) 대표적인 오름동호회로는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주관하는 어린이 오름학교, 이어도 정보문화센터가 주관하는 오름 기행, 제주문화포럼의 오름기행,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오 름사랑단과 오름사진 동호회 및 제주자생식물동호회 등 이 있다(제주도·제주발전연구원, 2000).
- 28) 제주도민들이 오름을 방문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관 광객과의 '구별짓기'에 있다. 육지와 마찬가지로 여가기 회가 확대되고 경제적 능력이 향상되었지만,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제주도민들의 여가장소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민들은 육지의 관 광객과 구별되는 장소를 찾고자 했다. 그것은 육지관광 객이 방문하는 장소가 대부분 방문 경험에 있는 장소임 과 동시에, 육지사람에 대한 배타적 태도에 따른 것이다. 도민들은 자신의 여가활동이 육지사람의 관광활동과 동 일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았으며, 관광객과 자신들을 공간적으로 '구별짓기'하기 원했던 것이다.
- 29) 시·군별 주요 대중관광지 방문객 점유율을 보면 서귀

포시가 35.8%이고 북제주군이 28.6%로서, 다소 높은 점 유율을 보여주는 한편, 제주시와 남제주군은 각각 16.8% 과 18.6%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발전연구원, 2001b).

- 30) 제주도는 고도를 기준으로 세 지역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먼저 해발 200m이하의 지역을 해안지역으로, 200에서 600m사이의 지역을 중산간 지역으로, 그리고 600m이상의 지역을 한라산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중 산간 지역은 그 면적이 589km<sup>2</sup>으로서 제주도 전체 면적 의 31.8%에 달하는 지역이다(제주도, 2000)

## 文獻

- 김갑성 외, 1997, 주요통계로 본 지역별 위상과 과 제, 삼성경제연구소, 서울.
- 김왕배, 2000, 도시, 공간, 생활체계, 한울, 서울.
- 김재필(역), 1993, 포스트모더니즘과 사회학, 한신 문화사, 서울(Lash, S., 1990, *Sociology of Postmodernism*, Routledge, London).
- 김종철, 1995, 으뜸나그네, 도서출판 높은오름, 제주도.
- 박형준·권기돈(역), 1998, 기호와 공간의 경제, 현 대미학사, 서울 (Urry, J. and Lash, S., 1996, *Economies of Signs and Space*, SAGE Publications Ltd, London).
- 심승희, 2000, "문화관광의 대중화를 통한 공간의 사회적 구성에 관한 연구 -강진·해남지역 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 학위 논문.
- 오정준, 2003,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관광에 관한 연구 -생태관광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 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임현진·정일준(역), 1998, 성찰적 근대화, 한울, 서울(Giddens, A., Beck, U. and Lash, S., 1994, *Reflexive Modernization*, Stanford Univ. Press, California).
- 전경갑, 1998, 현대와 탈현대의 사회사상, 한길사, 서울.
- 제주도, 1990, 제주통계연보, 제주도.
- \_\_\_\_\_, 2000, 제주도 전지역 GIS 확대 구축, 제주도.
- \_\_\_\_\_, 2003, 제주통계연보, 제주도.
- 제주도·제주발전연구원, 2000, 제주오름의 보전·관리방안, 제주도.
- 제주발전연구원, 2001a, 제주지역 일본군 전적지의

역사교육장화를 통한 관광상품화 방안, 제주도.

\_\_\_\_\_, 2001b, 제주 세계 섬 문화축제가 제주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 제주도.

\_\_\_\_\_, 2002, 제주관광유통체계의 진단과 개선방안, 제주도.

최병두, 2000, 현대사회지리학, 한울, 서울.

하태환 (역), 2001, 시뮬라시옹. 민음사, 서울 (Baudrillard, J., 1981, *Simulacres et Simulation*, Éditions Galilée, Paris).

한국관광공사, 2002, 국민여행실태조사, 한국관광공사, 서울.

홍성민, 1997, "아비투스, 그 존재론적 의미 -부르디외 사회학을 철학화하기-", 이구표(외) 엮음, 프랑스철학과 우리 -포스트모던시대의 사회역사철학-, 당대, 서울, 271-311.

현창국, 2000, 제주다워야 제주가 산다, 한울, 서울.

Benjamin, W, 1973, The work of art in the age of mechanical reproduction, in T. Bennett(ed.) *Illuminations*, Fontana, London, 219-254.

Eco, U., 1986, *Travels in Hyper-Reality*, Picardo, London.

Feifer, M., 1985, *Going Place*, Macmillan, London.

Graburn, N.H.H., 1983, The anthropology of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18(1), 42-55.

Krippendorf, J., 1982, Towards new tourism policies,

*Tourism Management*, September, 135-148.

Mowforth, M. and Munt, I., 1998, *Tourism and Sustainability : New Tourism in the Third World*, Routledge. London.

Munt, I., 1994, The 'other' postmodern tourism: culture, travel and new middle classes, *Theory, Culture and Society*, 11, 101-123.

Poon, A., 1989, Competitive strategies for a "new tourism," in C. Cooper(ed.) *Progress in Tourism, Recreation and Hospitality Management*, 1, 91-102.

Shaw, G. and Williams, A., 1994, *Critical Issues in Tourism : A Geographical Perspective*, Blackwell, UK.

Urry, J., 1989, Sociology and geography, in R. Peet and N. Thrift (eds.), *New Models in Geography*, Unwin Hyman, London.

Urry J., 2002, *Tourism Gaze*, Sage publications Ltd, London.

WTO, 2004, Tourism statistics database, Tourism 2020 Vision(<http://www.world-tourism.org>).

<http://www.nso.go.kr>

<http://www.jeju.go.kr>

최초투고일 04. 05. 04  
 최종접수일 04. 06. 21